

# 강도 높은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 김관영 도지사, 부처단체 예산 반영 진두지휘 중앙부처 찾아 현안 관련 부처 차관 등과 면담 최병관 부지사, 기재부 등 찾아 국비 지원 건의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처 단계에서 도정 현안과 주요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이러한 활동은 그동안 전례가 없을 정도로 김지사의 절실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관영 지사는 21일 오전 7시에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의 부처 막바지 쟁점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으며, 바로 세종으로 달려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5개 부처의 차관 또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등을 직접 방문해 막바지 설득 작업을

펼쳤다.

먼저 김관영 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중대형 전기상용차용 대용량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초급속충전 평가기반 구축사업 △미래상용차 자율주행 운송 전주기 검증용 시험환경 조성 기반 구축사업 △친환경 유무인 해양 모빌리티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초격차 에너지소자 전극용 초고성능 탄소소재 제조 및 응용기술 개발사업 등에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환경부에는 △섬진강댐 광역상수도 비상연계 구축사업 △남원시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무주군 폐기물 매립시설 3단계 확장사업 등에

내년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국가전략작물(밀) 비확단지 구축사업 △는 범용화 용수공급 체계 구축사업 △맞춤형 식품 실증 및 상용화 시스템 구축사업 △맥류사업 다각화 지원 시범사업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25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해양수산부에는 △새만금신항 1-1단계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 △해양수산 스타트업 생태계 플랫폼 조성 △국립해양생명과학관 건립 △격포항·궁항 친수공간 연안정비 사업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사업 등에 국가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국립모두예술 플랫폼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국립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국립전주박물관 복합문화관 조성사업 △고래 위를 걷는 상상의 나라 k-lake 조성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기재부에서 개최한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 등의 신속 추진과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1-1단계 재정사업 전환 △새만금 환경 생태대용지 2-1단계 △새만금 수변도시 복합커뮤니티 센터건립 △새만금 국가정원사업 등에 대해 국가예산 반영 요청했고, △국립모두예술플랫폼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분관 △국립 태권도사관학교 △고령친화산업합단지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 사업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부처 단계에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지사를 비롯해 전 실국이 5월 남은 기간 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자"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1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가 임상준 환경부 차관에게 전북 현안의 내년도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 “새만금 신공항 사회적 대토론회 제안한다”

### 오은미 전북자치도의원,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당초 목적수행 어려워”

새만금 신공항이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당초 목적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새로운 접근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이 지난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의 문제를 냉정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와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오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작년 8월 새만금 잠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돌연 새만금 SOC사업 재개를 발표해, 올해 새만금 공항과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국비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오 의원은 새만금 SOC 사업 중 정부와 전북도가 지역 균형 발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건설, 동북아 물류 허브 건설을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일반적 국제공항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크기, 중국 노선 취항 불가, 수익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적은 수요, 인근 국제공항들과의 수요 중첩, 군 공항인 군산공항과 90% 이상 공역이 겹쳐 미군의 통합관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입지적 한계 등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당초의 목적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오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 부지는 군산공항에서 불과 1.35km 내에 있어 군산공항과 신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와 군산공항과 신공항 중간에 관제탑이 설치될 예정이며 신공항 활

주로 높지도 군산공항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1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신공항 건설의 실체는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전북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되는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소중한 깃발을 파괴하는 한편, 전쟁 훈련기지를 미군에게 무상 증여하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이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오은미 의원은 “기후재앙, 생태학상, 전쟁 위험, 형세 퍼붓기로 규정될 수 있는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지속 가능한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한 해, 진정한 전북발전을 위해 어떠한 접근과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 솔직·냉정·냉철한 사회적 대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자치도에 ‘새만금 신공항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이만호 기자

## 박정희 도의원, ‘K-교육관광 미래포럼 IN 전북’ 참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 의원(군산)은 지난 17일 익산에서 열린 K-교육관광 미래포럼 IN 전북에 참석, 전북형 K-교육관광상품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포럼은 국제특수목적미시진흥회(ISPA)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개최한 것이다. 중국 관광기업과 한국 민·관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와 중국 청소년 수혜여객단 유치에 위한 자리로, 지자체 체험과 교육관광 홍보 등이 이뤄졌다.

포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익



산문화관광재단, 군산시관광활성화재단, 르네상스 사업단 등이 참여했고, 중국의 성서성 관광협회와 서안시 교육국을 포함한 중국과 베트남 교육관광업계 인사 150여명이 참가했다.

박정희 의원은 “반한역(외국 수혜여객단) 1만명 유치를 위한 이번 포럼은 중국과 아시아 학생들에게 홍보할 전북형 K-교육관광 상품이 개발되는 기

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 체험상품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SPA 이창주 회장은 “이번 포럼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1만여 명의 외국 청소년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다양한 문화권의 소통을 통해 문화, 교육, 체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포럼 이후 전주한옥마을과 익산국립박물관, 군산시 근대문화거리와 한국 전통시장 등 전북의 관광·교육명소를 탐방하기도 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의 재도약 위해 실천기구 결성하자”

### 민주 정동영 당선인,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 당선인(전주)이 지난 20일 열린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에서 “전북의 재도약을 위해 실천기구를 결성하자”고 주장했다.

전북재도약추진위원회(전북에향본부)가 주관한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가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 컨벤션 데이저에서 열렸다.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정동영·조배숙·안호영·한병도·신영대·이원택·윤준병·이성운·박희승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정현을 익산시

장,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정성주 김제시장, 전충성 진안군수, 최훈식 정수군수, 심민 일실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등 도내 주요 기관과 단체장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에 걸쳐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전북연구원장은 “전북 재도약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새만금 국제공항, 완주·전주 광역경제권, 첨단 상용모빌리티, 한국의 맛·멋·소리를 중심으로 발전 의제를 제시했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강이 필요한 의제로 소개했다.

/이만호 기자

## 정읍시의회 임사회 개최

정읍시의회(회장 고경운)는 5월 21일 제294회 임사회를 개최하고, 3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만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장기적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석환 의원은 시민의 휴식과 건강을 위해 내장상동 시민친화 공원을 조성하자고 했으며, 서항경 의원은 정읍시 수성지구 등 획기적인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사회의 주요 일정은 22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10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하며, 29일부터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임사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립대환 기자

## 전북자치도, 순창군과 공사장 안전점검

### 윤동욱 도민안전실장, 최영일 군수와 쉐럴랜드 조성 현장 찾아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익산과 고창 지자체 발주공사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일 산재 발생을 위한 총력 대응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1일, 윤동욱 도민안전실장과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 내 공사장 안전점검을 찾아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설 공사장은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안전 수칙 준수가 가장 강조해야 할 사업장이다. 이번에 점검한 쉐럴랜드 웨케이션 거점 공간 공사장은 인계면 생안리에 약 26억 원을 투입해 공유오피스 공간 1동(약 240㎡)과 팀오피스 공간 4동(약 280㎡)을 건축 중이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점검은 먼저 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 안전대책 수립 현황에 대해 청취한 뒤, 다음으로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에게 사전 점검을 의뢰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보고 이후에는 현장을 돌면서 안전



관리자 지령 및 감독 상태, 안전도 등 보호구 지급·착용 상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장치 설치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건설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노동자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안전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며, “특히 지자체 발주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계장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내 사업장을 돌아봐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이만호 기자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정월 총원 노력 공로 인정

### 김성수·김슬지 전북자치도의원, 감사패 수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고창)의원과 김슬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21일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라북도협회 감사패를 수상했다.

협회측에 따르면(협회장 이명재) 김성수 의원과 김슬지 의원이 사회복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전북지역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정월 총원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패를 수상받은 김성수·김슬지



의원은 “단열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